

남가주 성남 동문회 뉴스레터

(2014 년 4 월호)



義에 살고 義에 죽자

(남가주 성남 동문회 주소 및 연락처 -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동문회장 인사의 글

성남 선,후배님들과 가족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희 남가주 동문회의 새 임기가 시작된지 어느덧 3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임원들이 1 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모여 임원회의를 갖고 저희 동문회의 올해의 사업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의논했고 이의 실행을 위해서 현재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사업으로 지난 2-3 월 중에는 전체 동문들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들을 업데이트 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또한 골프회와 산악회등 저희 성남동호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각 동호회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3 개월마다 발행될 저희 동문회의 뉴스레터를 위해서 임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결과 지금 받으신 첫 뉴스레터가 발행되었습니다. 모쪼록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 동문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관심과 후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남 가족으로서의 따스하고 친밀한 교류가 증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4 년도 동문회장, 이원모 드림

남가주 성남 미주 동문회의 활동과 소식

2014 년 동문회 임원진 구성

고문: 김홍수(25)

회장: 이원모(31), 부회장: 김인호(31)

총무겸 서기: 이 훈(36), 부총무: 신승식(45), 회계: 남승현(40)

상임임원: 박사익(33) 이병근(36) 이원영(36) (상시 임원회 참석과 필요한 임무 수행)

자문위원들: 전회장님들과 동문회에 특별히 관심있는 분들

2014 년 성남 동문회 임원회의

지난 1 월 11 일, 2 월 15 일, 그리고 3 월 15 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저희 임원들이 모여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올해의 여러가지 동문회 사업과 행사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했고 그 결과 다음 사항들을 결정 했습니다.

올해의 동문회 사업(활동) 계획

- 올 해 동문회 사업의 초점과 방향

남가주 동문들이 선후배 성남가족으로서 따스한 친밀감과 소속감, 자부심등을 느끼며 서로 교류하고 친목할 수 있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전체 동문록 업데이트

이를 동문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로 간주하고 전체 동문들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등을 꾸준히 업데이트 시킨다

- 성남 동호회의 활성화와 협조

골프회/산악회/테니스회/검도회등 기존의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

- 3 개월에 한번씩 남가주 성남 소식지 만들어 보내기 (4 월/7 월/10 월/1 월 발행)

뉴스레터에 동문회 활동 소식, 골프회, 산악회등 동호회 소식, 동문들 동정, 경조사, 동문들의 기고문, 모교 소식 등을 담아서 남가주의 모든 성남 동문들께 전달함

- 여러가지 동문회 친목모임

- 4 월 13 일: 성남 동문들 볼링 컨테스트

김정환 동문(35)의 특별 후원으로 4 월 13 (일요일) 오후 4 시에 다운타운의 리틀 도쿄의 볼링장에서 볼링 대회가 있을 예정. 먼저 오후 4 시에 모여서 볼링 대회를 가진 후에 같은 장소에서 맛있는 저녁식사 예정. 참가 인원이 모두 30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4 월 6 일까지 회장이나 이 훈 총무 또는 임원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로 이미 연락드린바 있음.

- 7 월 26 일: 레이크 엘시노에서의 관광 온천과 골프토너먼트

레이크 엘시노에서의 하루코스의 온천과 골프 토너먼트를 겸한 모임으로 동문과 가족 모두 환영. 골프를 안치시는 분들은 온천과 관광만의 코스 마련 예정 (추후에 구체적 내용 발표할 예정)

- 12 월의 송년모임

12 월 20 일(토), 저녁시간 - 가능한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함께 즐길수 있는 재미있고 따뜻한 송년 모임 (추후에 구체적 내용 논의/발표)

각 동호회 소식

골프회 소식:

올해의 새 골프회장이신 조규훈 동문과 총무 이훈 동문의 특별한 수고로 지난 3 월 22 일의 로얄 비스타에서의 골프 토너먼트에 모두 28 명의 성남 골프회원들이 모여서 즐거운 행사를 치렀음. 이날 토너먼트에서는 멀리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영희(16) 선배님 내외분등이 참석하셨고 이날 챔피언 트로피는 80 세를 넘기신 연세임에도 그 어려운 코스에서 13 개 오버파를 치신 조병천(14 회) 선배님께서 수상, 멋진 골프백을 부상으로 받으셨습니다. 특히 이날은 성남 골프회 창립 30 주년을 기념하는 떡으로 만든 특별 케익이 마련되었고 또한 성남 로고가 들어간 골프 티셔츠가 참가자 전원에게 전달된 가운데 상쾌한 봄 날씨 속에 참석자 모두가 골프부터 저녁식사까지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악회 소식:

(뉴스레터 다음호에는 방다니엘 산악회장님이 기고하신 동문 산악회 소식과 특별 산행 기록 및 사진등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테니스회 소식:

테니스회는 초대 회장이셨던 방다니엘(24) 동문을 비롯 현재는 정민수(30) 동문이 회장으로 주상봉(33) 동문이 총무로 수고하며 조재섭(31), 신용호(35) 동문등이 매달 셋째 토요일 4 시에 사이프레스에 위치한 테니스 코트장에 모여 비지땀을 흘리며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고 함. (뉴스레터 다음호에는 정민수 회장께서 구체적인 테니스회 소식들을 전달할 예정.)

남가주 성검회 소개

과거에 저희 성남 검도부가 전국에 이름을 떨쳤던 것은 아마도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선수로 활동했던 검도부 성남 선배님들이 아직도 이곳에서 '성검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운동을 하며 검도부의 자랑스런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 잠시 저희 '성검회'를 소개합니다.

교점지애! 교점지우!



우리들은 검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벗의 정을 나눈다. 서로의 검을 겨루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짜릿함을 느낀다. 어느새 잊고 있었던 선수 시절의 그 긴장감이 흐르고 서로가 일함 이함 검을 나눌때면 마음이 후련하고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날려 버리는 것 같다. 온 몸에 모공이 다 열려 몸에 더러운 것들을 다 발산하여 날려 버리는 것 같다. 그리고 한판이 끝나면 아직도 더 배울 것이 많다는 아쉬움에 빠진다.

검도가 너무 어려워서 몇 번이고 다른 운동을 배우려고 했건만 벌써 37년이 흘렀고 이제 평생 검도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옆에 선배님들이 후배가 함께 있어 검을 나눌수 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정인재 선배님(24)과 차종갑 선배(35)께서 소천 하셨고, 올해에는 김석환 선배님(29)이 소천 하셨다.

지금 엘에이 지역에는 이곳 성검회 현 회장인신 현수일 선배(30)와 허 옥 선배(32), 정용석 선배(34), 오상영후배(42)와 서울에서 방문 중인 장승민 선배(35)가 있고, 현재 운동은 안하지만 박재욱 선배(30 회-현 미국 검도 연맹에서 활동중)와 최지환 선배(35)가 있다. 매월 한차례 토렌스의 허 옥선배 도장에서 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끝나면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잔 하며 서로의 검도관을 나누며 연구하고 있다.

서로 다른 단체에서 고단자로 실력을 인정 받는 성검회는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과 세계검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본다. 참고로 한국의 현 성검회 회장은 신 승호 동문(36 회)이고 현 대한 검도회 전무 이사이며 국민대학교 교수이고 8 단 최 고단자 이다.

저희 성검회의 활동에 모든 동문들의 따스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남가주 성검회, 이원영 (36 회)

각 동기회 소식

전체 동문회 모임과는 별도로 각 기수별끼리 활발한 친목 모임을 갖는 동문 들이 제법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서 각 기수별 모임에서 나오는 전체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즐겁고 흐뭇한 소식들이 있으면 저희 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들 동정/소식: (경조사)

부고:

- 며칠전 이메일에 전한대로 구자순 동문(17)의 모친께서 3 월 23 일에 소천하시어 지난 수요일인 3 월 26 일, 저녁 7 시 반에 놀웁에 위치한 성 라파엘 한인 성당에서 장례식을 가졌는데 동문회 임원 및 여러 동기들이 참석, 본인과 유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 지난번에 알려드린대로 1 월 중에 김홍수(24 회) 동문의 부친이신 김영순 용께서 94 세의 연세로 소천하시어 하관식과 장례식을 영락교회와 한국장의사에서 마친바 있습니다.

자녀 결혼:

- 김인호(31) 동문의 따님 김 정 양이 오는 5 월 3 일, 오후 4 시 30 분에 엘에이의 월서 연합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과 축복을 바랍니다. (연락: 김인호 213-503-0322)

동문들께 알리고 싶으신 경조사에 대한 소식이 있으시면 동문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뉴스레터등을 통해서 동문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모교와 한국의 동창회 소식

모교소식

개교 75 주년의 성남 고등학교 제 20 대 교장으로 이동호 선생님이 취임. 현재 교원 89 명중 수업 교사가 84 명이며, 1 학년은 14 개반에 490 명, 2 학년은 14 개반에 514 명, 3 학년 14 개반 514 명 총 1,494 명의 후배들이 재학 중이다.(2013 년 기준)

특히 신임 이동호 교장 선생님은 다음을 목표로 성남 고등학교를 한국에서의 일류 고등학교로 이끌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1.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2.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3. 미래 인재 양성하는 진로, 진학 지도
4.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5. 교육 주체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현
6. 건학 이념의 계승과 발전

모교 동창회 소식

- 올 해의 제 22 대 총동창 회장에 정 주백 동문이 취임하여 “참여, 교류, 포용으로 모든 동문이 하나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노력중임.
- 제 14 대 총동창 회장이었던 심호명 동문이 2014 년 3 월 6 일에 있었던 국민포상 시상식에서 6.25 전쟁- 60 주년 기념사업 유공자로 선정되어 상을 수상함.
- 넥센 히어로즈의 4 번타자 박 병호(62) 동문이 2 년 연속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인 MVP 로 선정되어 자랑스런 성남인의 위상을 드높임.

(이원영 기자의 보도)

동문들 수필/ 시/ 훈훈한 덕담/ 기타의 기고문

(이곳은 동문들의 수필, 시, 함께 나누고 싶은 훈훈한 덕담이나 기타 기고문들을 사진과 함께 신는 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고해주시면 지면등을 고려해서 전문 또는 기고자의 동의하에 그 일부를 수정해서 실도록 하겠습니다.)

음미해볼만한 글

이제라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려면..?

Bronnie Ware 라는 호주 여성은 학교 졸업 후 은행에서 일하다가 평생 할 일이 아니다 싶어 직장을 그만 두고 꿈을 찾아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 있는 동안 생활비를 벌기위해 시작한 일이 노인들 병간호. 호주로 돌아와서도 작곡공부를 하며 틈틈이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워낙 사람을 편하게 했는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은 이 여성에게 그들이 평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을 얘기해 주었는데, 이 여성은 이러한 노인들의 얘기를 정리하여 책으로 엮어냈고 이는 바로 베스트 셀러가 됐다.

이책에 소개된 노인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중 다섯가지를 요약하면..

1. 난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 -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2. 그렇게 열심히 일 할 필요가 없었다. -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 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조차 서먹해졌다.

3.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 못했다. - 내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순간순간의 감정을 꺾꺾 누르며 살다보니 병이 되기까지 했다.

4.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 다들 죽기 전 얘기하더라고 한다. "친구 OO 를 한번 봤으면.."

5.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었다. -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된다고 생각해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이들중에는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궁궐같은 집에서 한번 살았으면..', 고급차 한번 못 타 봤네..', '애들을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은 이제라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훈 총무 제공)

안내의 글

- 3 개월에 한번씩 발행될 저희 동문회 소식지에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 종류의 재미있고 훈훈한 글들(시, 수필, 독후감, 동기소식, 자랑거리, 기타 등등)을 저희 임원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 동문회에 후원금을 전달하시려면 체크의 Pay to the order 난에 “**Seung Hyun Nam**” (남승현(40)- 저희 동문회의 회계담당임) 이라 쓰셔서 아래의 우편주소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정으로 저희 동문회가 IRS 의 세금공제를 받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안되어있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문회 소식과 뉴스레터등을 여러분께 전달하는데 시간과 노력 및 경비 절약을 위해서 이메일을 적극 활용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메일 주소를 갖고계시면서도 아직 동문회 소식을 이메일로 받지 못하고 계시면 저희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인 이원모 드림

(바쁘신 중에도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락처: 회장 이원모(31) 213-618-6843 (jamesleesn@gmail.com)
총무 이 훈(36) 562-569-4055 (godisgood9485@gmail.com)

남가주 성남 동문회
(Sung Nam Alumni Association in S. CA)

우편주소: Sung Nam (James Lee)
301 N. Belmont St #307, Glendale, CA 91206